■ 고사성어 ⑤

(예서체)

由江 權丞世

경북 영주생 검교공파 34세
H. P : 010-5483-7511
-약력-
·개인전4회, 초대그룹전250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운영위원, 심사위원 역임
·영남미술협회 회장
·유강 서화연구원 원장

구우일모(九牛一毛(九(아홉 구) 牛(소 우) 一(한 일) 毛(털 모)) : 아홉마리의 소 가운데서 뽑은 한 개의 (쇠)털이라는 뜻으로, 많은 것 중에 가장 적은 것의 비유.

한(漢)나라 7대 황제인 무제때(B. C. 99) 5000의 보병을 이끌고 흉노(匈奴)를 정벌하러 나갔던 이릉(李陵)장군은 열 배가 넘는 적의 기병을 맞아 초전 10여 일간은 잘 싸웠으나 결국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패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듬해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난전(亂戰)중에 전사한 줄 알았던 이릉이 흉노에게 투항하여 후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를 안 무제는 크게 노하여 이릉의 일족(一族)을 참형에 처하라고 엄명했다. 그러나 중신을 비롯한 이릉의 동료들은 침묵 속에 무제의 안색만 살필 뿐 누구 하나 이릉을 위해 변호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이를 분개한 사마천(司馬遷)이 그를 변호하고 나섰다.

"황공하오나 이릉은 소수의 보병으로 오랑캐의 수만 기병과 싸워 그 괴수를 경악케 하였으나 원군은 오지 않고 아군 속에 배반자까지 나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패전한 것으로 생각되옵니다. 하오나 끝까지 병졸들과 신고(辛苦)를 같이한 이릉은 인간으로서 극한의 역량을 발휘한 명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옵니다. 그가 흉노에게 투항한 것도 필시 훗날 황은(皇恩)에 보답할 기회를 얻기 위한 고육책(苦肉策)으로 사료되오니, 차제에 폐하께서 이릉의 무공을 천하에 공표 하시오소서. "

무제는 진노하여 사마천을 투옥(投獄)한 후 궁형(宮刑)에 처했다. 사마천은 이를 친구인 '임안(任安)에게 알리는 글(報任安書)에서 '최하급의 치욕'이라고 적고 "내가 법에 따라 사형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한낱 '아홉마리의 소 중에서 터럭 하나 없어지는 것'과 같을 뿐이니 세상사람들 또한 내가 죽는다 해도 절개를 위해 죽는다고 생각하기는 커녕 나쁜말 하다가 큰 죄를 지어서 어리석게 죽었다고 여길 것이네."

사마천이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살아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당시 사마천은 태사령(太史令)으로 봉직했던 아버지 사마담(司馬談)이 임종시(B.C. 122)에 "통사(通史)를 기록하라"고 한 유언에 따라 <사기(史記)>를 집필중에 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사기>를 완성하기 전에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몸이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중국 최초의 사서(史書)로서 불후(不朽)의 명저(名著)로 꼽히는 <사기> 130권이 완성(B.C. 97)되어 오늘에 전해지고 있다.

(행서체)

구밀복검(口蜜腹劍)口(입 구) 密(꿀 밀) 腹(배 복) 劍(칼 검) : 입속에는 꿀을 담고 뱃속에는 칼을 지녔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체 하지만 속으로는 은근(慇懃)히 해칠 생각을 품고 있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당(唐)나라 현종(玄宗 : 712-756) 후기에 이림보(李林甫)라는 재상이 있었다. 그는 태자 이하 그 유명한 무장(武將) 안록산(安祿山)까지 두려워했던 전형적인 궁중 정치가(宮中政治家)였다. 뇌물로 환관과 후궁들의 환심을 사는 한편 현종에게 아첨하여 마침내 재상이 된 그는, 당시 양귀비 (楊貴妃)에게 빠져 정사(政事)를 멀리하는 현종의 유흥을 부추기며 조정을 좌지우지 했다. 만약 바른 말을 하는 충신이나 자신의 권위에 위협적인 신하가 나타나면 가차없이 제거했다. 그런데 그가 정적을 제거할 때에는 먼저 상대방을 한껏 추켜올린 다음 뒤통수를 치는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수법을 썼기 때문에 특히 벼슬아치들은 모두 이림보를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림보는 '입으로는 꿀 같은 말을 하지만 뱃속에는 무서운 칼이 들어 있다(口蜜腹劍).'"

■ 우강 권이혁 전 장관 에세이

외규장각 도서 귀환

1866년 병인양요(丙寅洋擾)때 프랑스군이 약탈해갔던 외규장각(外奎章閣)도서 297권 가운데 1차분 75권이 2011년 4월 14일 귀환하였다. 병인양요는 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을 구실삼아 프랑스 함대가 고종 3년 강화도를 침범한 사건을 말한다.

외규장각은 1782년 2월 정조(正祖)가 왕실관련 서적을 보관할 목적으로 강화도에 설치한 도서관으로, 왕립도서관 규장각의 부속 도서관 역할을 하였다. 설치 후 왕실이나 국가의 주요행사 내용을 정리한 의궤(儀軌)를 비롯하여 총 1,000여 권의 서적을 보관하고 있었으나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일부 서적을 약탈해 갔고 나머지는 방화로 불에 타 없어졌다.

1975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촉탁직원으로 일하던 박병선 박사가 도서관에 조선시대의 도서가 보관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목록을 정리하여 그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 규장각은 서울대학교에 있는데, 서울대는 1991년 정부에 도서 191종 279권의 반환 추진을 요청하였고, 1992년에 정부는 외규장각 도서목록을 프랑스에 전하여 도서 반환을 요청하였다.

1993년 9월 한국·프랑스 정상회담 때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경부고속철도 부설권을 프랑스 테제베(TGV)가 따내기 위한 의도로 '휘경원원소도감의궤'(徽京園園所都監儀軌) 상권 1권을 가지고와 외규장각 도서 반환의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외규장각 도서는 반환되지 않았고 2000년 10월 다시 양국 정상 회담에서 한국에 필사본이 없는 63권을 '대등한 문화재 교환 전시' 형식으로 2001년까지 한국에 반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반환 협상이 연기되거나 프랑스 측에서 계속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국제재판소의 힘을 빌리더라도 무조건 반환시켜야 한다는 역사·학술시민단체의 외규장각 도서 반환운동이 확산되는 등의 이유로 이 과제는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러던 중에 이번에 297권 중 1차본 75권이 귀환한 것이니 그 뜻은 대단한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래도 협상 20년 만에 맞이한 이번의 경사는 지대한 의미를 갖는다. 조선왕조의궤는 조선왕실의 중요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것이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기록문화재인 것이다. 종이부터 글씨까지 최고급을 쓴 어람용(御覽用 ·왕이 보는 것) 서적이다.

이번 반환의 실마리를 찾은 박병선(83) 박사는 서울대 사범대 사회생활과를 졸업하고 1955년 프랑스로 유학간 서지학자인데 유학갈 때 은사였던 이병도(李丙燾, 1896-1989) 선생으로부터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해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소재를 찾아보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갖은 애를 썼지만 묘연했다는 이야기이다. 1969년에 프랑스 국립도서관 임시직원이 된 박박사는 1896년에 베르사유 궁에 파손된 책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침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번 외규장각 도서 반환의 일등공신은 박병선 박사이지만 재불 박흥신 대사를 비롯한 외교관들의 특출한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보도가 유난히 눈에 띈다. 외규장각 도서를 돌려주지 않으면 한·불 양국의 국익에 크게 저해가 된다고 프랑스 정부 측에 계속적으로 강조해왔고 프랑스 정부의 담당관도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반환을 설득했다는 후문이다. G20 정상회의 때는 이명박 대통령과 사르코지 대통령 사이에서도 이 문제가 토의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녀를 꿈꿨던 박 박사는 서울사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한 뒤 1955년 프랑스로 유학을 갔다. 우리나라 민간인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유학 비자를 받은 인사로 알려져 있다. 그는 소르본대학과 프랑스 고등교육원에서 역사학과 종교학으로 박사과정을 밟은 뒤 1967년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들어가 13년간 근무하면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심층 연구를 본격화하였다.

박 박사는 지난해(2010년) 1월 한국에서 직장암 수술을 받고도 10개월 만에 프랑스로 되돌아가 최근까지 병인양요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면서 저술활동을 해왔었다. 박 박사는 "병인년, 프랑스가 조선을 침노하다"의 속편을 준비하다가 병세가 악화되자 지인들에게 '내가 직접 출간하려고 하였는데 아쉽다'면서 '병인양요' 속편을 꼭 마무리지어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강릉 권영진(權寧珍)족친 장원급제

영월 김삿갓 문화제에서

詩題 : 讚天惠名堂蘭皐墓

시제 찬천혜명당난고묘

權 寧 珍

遺骸奉侍蓋銘旌 유해봉시개명정	유해를 받들어 모시고 명정을 덮으니
獐頸明堂此地明 장경명당차지명	노루목 명당이 여기가 분명함이네
艮坐內龍開吉穴 간좌내룡개길혈	간좌로 오는 용이 좋은 혈을 열었고
坤方向局得嘉名 곤방향국득가명	곤방으로 향한 국이 좋은 이름을 얻었네
全南致葬孤魂恨 전남치장고혼한	전남에서 이루어진 장사는 고혼의 한이요
臥石遷封嗣子誠 와석천봉사자성	와석에 옮겨 모심은 대 이은 아들의 정성이네
天爲蘭皐成造處 천위난고성조처	하늘이 난고를 위해 만든 곳이니
後孫萬代賴繁榮 후손만대뢰번영	후손 만대에 번영함을 믿어 의심 않으리

(강릉 권혁윤)

▲동헌백일장에서 권영진씨가 장원급제를 했다.

2013년 10월 11일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문학관에서 시행된 김삿갓문화제 한시백일장에서 강릉 權寧珍족친이 장원급제의 영예를 안았다. 김삿갓 문화제는 해학천재시인 난고 김병연 선생을 기리는 사업으로 영월군 주관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 한시백일장은 전국 각처에서 200여 명이 참석하여 동헌백일장(東軒白日場)을 재현하는 격식으로 실시되어 장원급제의 의의를 더욱 높혔다.

권용섭·김재철의 독도이야기展

「독도에 우정의 종을 세우자」는 주제로 지난 10월25일 오전 11시, 덕수궁에서 퍼포먼스를 했으며, 이어서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전시실에서 주최 우정의 종 보존위원회, 독도의병대 후원 뉴스타문화공간, 미주 독도 세계알리기본부로 재미 독도화가 동곡 권용섭 창산 김재철 도자기작가 독도이야기展(30여점 출품)이 새누리당 이완영, 이상인, 권은희 의원, 서유석 가수, 남문기 해외한민족대표협의회 의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재미 독도전문 한국화가 권용섭(55. 의성) 화백은 현 미주 예총 미협회장, 경북독도해외 자문위원, 한미 우정의 종, 국립해양박물관 홍보대사, Gaia Gallery 운영, 시카고 중앙일보 '지구촌기행' 연재 중에 있다. 권화백은 지난 86년부터 개인전 및 족전 100여 회 개최, 2000년 한국경찰청 권용섭의 아름다운 독도전, 국회, 경북, 프레스센터 독도전을 열었으며 독도수묵 퍼포먼스 2002 월드컵기념, 세계한상대회 등 50여 회, 다큐멘터리 KBS, MBC, 한미방송 등에 다수가 방영되었으며, 지구촌 테마기행, 북한 평양, 브라질, 중국 등 미술치료봉사와 해상왕 장보고의 뱃길, 그랜드캐년 수묵기행 20개국을 두루 하면서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한국을 알리고 독도를 알리는 대표화가로 크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창산 김재철 도자기화백은 계명대 대학원 산업미술학과 졸업(도자기공예 전공)하고 개인전(7회), 초대전(50회), 공모전(60회), 단체전(200회), 해외전시회(40회) 등을 열었으며, 경북 최고장인 지정, 경북문화상 수상, 경북무형문화재 사기장 32다호 이수자, 前 세계공예가회 임원회의 및 아태지역총회 조직위원장, 대한민국 공예박람회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심사위원, 경북대구미술대전 초대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9월12-15일 대구엑스포 1층 3홀에서 대구전시회도 열었다.

〈권오복 편집위원〉

이달의 시

자작 숲, 새들에게는 악보가 있습니다

권경업 詩人
62才 안동·별장공파. 36世
(사)아름다운사람들代表

새벽잠 달아나게 추우면
곧, 동 틀 때라고
솔시레, 쑥밭재 새잎 돋우는 높은 음자리
서러운 빛 노을에도 가슴은 뜨거워
도미솔, 취밭목 자작나무 잔가지 끝
가랑잎 지우는 낮은 음자리
우리, 다들 보잘것없이 세상에 왔어도
다른 것들의 작은 삶을 위해 몸을 눕히는
저 자작나무 고사목의 눈물겨움처럼
하나하나의 소중한 의미는 있어
함께 춤추고 노래 부르자며
오선 五線이 되어 흔들며 흔들리며 흘러가는
골바람 개울물 화음 和音을 넣는
자작 숲, 새들에게는 악보가 있습니다

제3회 대한민국매죽헌서예대전

월소 윤택희서예가 특선 당선

월소 윤태희서예가(권태강 검교공파종회장 부인)가 지난 7월14일 한국매죽헌서화협회에서 주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매죽헌서예대전에서 去歲何時君別妾(거세하시군별첩), 作己冬節又動秋(작기동절우동추)란 작품을 출품해 10월9일「특선」에 영광을 안았다.

이 서예대전은 충문공 매죽헌성삼문선생의 죽음으로 지키신 충절의 정신과 민족문화의 정수인 훈민정음 창제에 크나큰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서예대전을 열었으며 월소 윤태희서예가는 현 한국서예미술진흥협회 서예초대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권오복 편집위원〉

독립운동과 권오설의 등장

3·1운동이 전국을, 그리고 안동도 휩쓸고 지나가는 속에서도 가일마을은 그저 조용했다. 안동에서 순국자만 30명이나 될 정도로 폭풍이 지나갔지만, 풍산들을 중심으로 삼은 남서부는 조용했다. 그저 풍산읍내에서 기독교인 100여명이 시위를 잠시 벌일 뿐이었고, 하회에서는 소년 10여명이 만송정을 돌면서 한차례 시위한 것뿐이다. 세상이 뒤집어질듯 하던 그 때 가일 마을도 풍산들 주변의 여러 마을과 마찬가지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숨죽이고 있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가일을 뒤흔드는 바람이 몰아쳐 왔다. 바로 권오설權五卨(1897-1930)의 귀향으로부터 시작된 바람이다.

가일마을에 폭풍을 몰고 온 사람은 권오설이다. 그는 가일마을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 홍일헌洪一憲·권일權一·박철희朴喆熙·김삼수金三洙·김형선金亨善 등 다양한 이름만큼이나 그의 활동도 대단했다. 그의 집안은 양반이지만 가난했다. 소농에도 들지 못할 만큼 빈농이었다. 그래서 성장기 학습과정에 숱한 굴곡을 보였다. 그는 서당훈장으로 빈한한 가정을 꾸려가던 부친 앞에서 가학을 잇고, 신식교육이 처음으로 들어오던 1907년에 마을에 세워진 남명학교南明學校에 다녔다. 1914년 대구고등보통학교大邱高等普通學校(경북고등학교 전신)에 입학하였다. 만 17세에 대구고보에 진학했는데, 집안 사정이 어려워 경주 최부자로 널리 알려진 최준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러다가 2년 만에 대구고보를 그만두었는데, 학내 문제 때문이라고 알려질 뿐이다. 그는 상경하여 중앙고등보통학교를 2학기 동안 다니다가 학자금이 모자라는 바람에 중도 퇴학하고, 경성부기학교京城簿記學校에 입학 후 다시 퇴학하였다.

마침 같은 하숙집에 머물던 전라남도 보성출신 인물이 권오설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전남도청에 자리를 알선해주었다. 그래서 내려간 때가 1918년 10월이었다. 그 때는 가일마을이 광복회에 자금을 지원했다가 쑥밭이 되는 시절이다. 가일마을로서는 외지로 나간 마을 청년이 이 문제에 엮이지 않은 다행스런 순간이기도 했을 터이다.

그가 광주로 가서 자리 잡은 지 5개월 뒤에 3·1운동이 일어났다. 광주에서 일어난 3·1운동에 그가 배후 인물로 지목되어 경찰에 체포된 뒤 6개월 형을 언도받았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또 어떤 고생을 치렀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그가 3·1운동으로 고생한 사실을 알려주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가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한 이틀 뒤 <중외일보> 보도문이 그것이다. 이 기사는 권오설의 생애를 비교적 정확하게 다루었다.

〈다음호에 계속〉